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순원 소설가

세상 살다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 한두번 겪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이게 힘이 없는 사람과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었지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하루 목으려고 어느 집에 머물렀다. 해는 서산에 걸리고, 나그네는 방망이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때 마당에 무언가 반짝 빛나는 것이 보인다.

“저런, 옥구슬이 떨어졌군” 하고 그걸 주워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집의 거위도 햇빛에 반짝이는 구슬을 본 모양입니다.

저녁에야 주인집은 옥구슬이 없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구슬을 어딘가에 흘렸다는 생

억울한 표정을 짓는 공직자들

각보다 누군가 흠쳐갔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사람들에게 묶이고, 날이 밝으면 관가로 끌려갈 참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옆에 거위를 함께 묶어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그네 옆에 묶인 거위가 눈 뚱에 옥구슬이 나왔습니다. 진즉에 말하면 지난밤 풀러냈겠지만, 그러면 죄 없는 거위가 성급한 사람들에게 배가 갈려 목숨을 잃었겠지요.

플스토이의 소설 ‘하느님은 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에는 그보다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여인숙에 듭니다. 그날 밤 여관 주인이 누구에게나 살해되고, 나그네는 살인 누명을 쓰고, 먼 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고 머리카락이 허옇게 쉰 노인이 되었을 때 진범이 들어와 지난날 여인숙 주인 살해사건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끝내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감옥에서 보낸 저 청춘을 어떻게 할까요? 진실이 밝혀져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주인공은 하느님이 진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관료들 가운데 자

신의 업무와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한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이 보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처럼 힘 있고, 권력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얼마 전 여수 기름 유출 현장에서 코를 막은 사진이 신문에 실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장관이 어떻게 현장에 와서 피해 주민들 앞에 코나 틀어막는 모습을 보이냐는 질타가 이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 윤 장관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기침이 자주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입을 막은 것이고, 밤새 때문에 입을 막았다는 것은 오해다”며 매우 억울하다는 얼굴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이 분, 배려라는 말을 어떤 때 쓰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명하려 나와 국민들 앞에 ‘자신이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을 방송에까지 말할 정도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말의 기본을 모르는 막 말 수준인 거지요. 당연히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보다 먼저 카드사의 정보 유출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잘못된 양 말 말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자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를 한 장관이 있었지요.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잘못을 그냥 아저씨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여길 때 저절로 억울하다는 표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기용할 때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논문 표절 사건들도 그렇지요. 밝혀지면 다들 첫마디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공방 끝에 해당 학교와 학계에서까지 표절로 인정해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끝까지 공직의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억울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한 내각이 필지도 모르겠습니다.

社說

여수 유조선 충돌, 예인선에 줄이 없었다니

지난달 31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유조선에 탑승한 도선사가 예인선과 유조선 간에 로프가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통상 속도보다 빠른 속력으로 접근을 시도하다 송유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안 보고’를 통해 “사고 선박 오른쪽에서 예인선 4척이 끌어야 하지만 배 앞머리에 위치한 예인선이 유조선과 예인줄을 연결하지 않은 채 7노트 속력으로 접근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도 “유조선과 예인선의 연결고리인 로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통 선박의 균형을 흐트러트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인선과 유조선간 로프 결합·이탈에도 도선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선사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접근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얘기도.

통상 예인시에는 접안 7~8분 전에 닻을 내려야 하지만 사고 선박은 충돌 1분 전에 송유관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닻을 내려 충돌을 빚었다. 예인선 1척에 로프가 연결되지 않아 방향과 속도 조절에 실패한 탓이다. 이는 안전 접안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중간 수사 발표에서 제의시거 의혹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 로프 이탈 시에도 예인이 관철처럼 이뤄졌고, 관계기관이 묵인해왔다는 주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린 풍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기름 유출량 및 피해 축소, 누장 신고를 비롯 각종 의혹 등을 낱알이 조사해 진상을 공개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관행과 묵인 여부 등도 따져 규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광주 자동차기지 조성 기아차 노사에 달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에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1월 생산량이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주경제 핵심축으로써 ‘제2 자동차 도시 건설’을 향한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바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1월 중 자동차 생산량은 4만4410대로, 지난 2011년 1월의 4만3733대를 뛰어 넘었다고 한다. 당시 기아차 광주공장은 48만8154대를 생산해 최대 기록을 올렸다. 특히 1월은 설 연휴로 생산일수가 줄었지만 최고 기록을 경신, 올 53만 대의 역대 최고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기아차 노사가 지난 해 6월, 광주2공장 증산 합의에 이어 지난달 3년째 표류했던 3공장 봉고트럭 증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사 협력과 상생의 노력이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사실 올해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물론

광주경제에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기아차가 연산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첫해이고, 광주시 차원에서 지난해 핵심사업으로 정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이끌어낸 기반조성을 차질없이 해내야만 한다.

그 전제는 기아차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 분위기를 올 한 해 계속 이어 가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 양보해 만들어낸 협력의 틀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야 한다. 노사가 한마음이 돼 증산에 박차를 가할 때 성과를 일궈낼 수 있으며, 이에 광주시민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의료칼럼

심 봉사 눈 뜬 이야기



김영덕 보리안과병원 원장

소설 속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봉사로 어려서 눈을 못 보게 된다. 이렇게 어려서 시력을 잃은 안과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양측 눈이 다 실명되는 경우에는 눈의 제일 앞쪽 눈은 동자인 각막에 혼탁이 발생하거나 선천성 백내장, 망막신경에 선천적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 시신경의 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각막혼탁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어려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감염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치명적인 혼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된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카메라의 렌즈)에 혼탁이 발생한 질환으로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 발생하는 질환이나 선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영유아 시기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눈의 후부에 해당하는 망막이나 시신경에 선천적으로 발생된 질환도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아마 이런 안과질환이 심봉사에게 있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심 봉사는 어떻게 갑자기 다시 볼 수 있었을까? 심 봉사는 심청이가 황후가 돼 배운 맹인잔치에서 갑자기 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물론 지극한 심청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 봉사는 여러 가지 백내장이 발생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백내장은 점점 심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정체를 지지해주던 수정체 인대가 일부만 약해져서 백내장이 발생되어 있던 수정체가 흔들 흔들렸을 것이다. 또 평생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하게 외상을 받았을 것이며, 또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이러한 눈의 외상은 수정체를 더욱 흔들 흔들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흔들거리던 수정체가 맹인 잔치 중에 심청의 앞 에 두는 순간 유리체(눈의 후방 부위의 달걀 흰자와 비슷한 부위) 안으로 빠지게 되고, 이로써 지금까지 백내장에 의해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순간 감각적으로 심 봉사는 심청이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

런 환자들을 아주 오래전 내가 안과 전공을 시작할 무렵에는 드물지만 한번 씩 볼 수 있었다.

정상적으로 수정체는 360도 수정체 인대에 의해 고정돼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선천성 이상이나, 외상에 의해 수정체 인대에 손상이 오면 수정체는 제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어 수정체 탈구가 발생되게 되며, 이런 경우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 이런 경우 백내장이 동반돼 안과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이 쉽지 않고, 인공수정체를 공막에 실로 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망막수술과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여튼 심청이가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300석을 본인의 목숨과 바꾼 것을 보면 공양미 300석은 당시 굉장한 재산임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눈이 우리 몸에서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과 의사인 나는 하루에도 몇 명씩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진 환자들을 다시 잘 보이게 해주는 안과 의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안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싶어 보람을 느낀다. 다시 한번 안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기고

역사를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박동남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장

전국 1700여 개 고등학교에서 교회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가 부성과 불교 한 군데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 등은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채택마저 언론을 통해 협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다양성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획일적인 좌파 교조주의 역사교육이 만연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그들의 주장은 최근에 개정된 교회사교과서는 무려 1377군데를 고쳤어도 여전히 ‘식민지근대화론’ 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서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용어의 실수라기보다는 저자들의 역사관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측 주장은 다르다. 부성과 신현철 교장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수정됐고 대한민국 체제 정통성 유지, 산업화 성취와 변형에서 공과 내용 균형 취급, 민주주의 발전서, 북한 인권문제, 북한 군사 도발, 북한 핵 개발 문제 등을 고루 다룬 것 등이 다른 출판사와 대비해 우월하다는 교과협의회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산네트워크’

는 학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항의 방문을 일삼았다. 도대체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민주사회에서 교육의 핵심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음을 그들만 모르는 양을 것이다.

과거와 역사는 다른 것이다. 과거는 시간 상으로 지나간 일에 대한 사실이며 역사는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관은 동일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말한다.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된다. 역사를 어떤 요인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를 바라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관이라고 하는 이론이나 가설이 어떤 요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그 일면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그르치는 한낱 도그마가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식민지근대화론’이란 일본이 36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면서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자본주의팽아론’이란 일제식민지 이전에 이미 조선후기의 사회경제가 근대화본주의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있었다는 논리를 말한다. 소위 우파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맞고 좌파는 자본주의팽아론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관이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간파한 오류이다. 모두가 민족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20세기 역사관에 매몰된 모습일 뿐이다. 더구나 ‘부산네트워크’처럼 자신의 주장을 남는 학교의 항의방문은 폭력행위에 다름없다.

“일본사학이 일본본국체를 주장하기 위해 일본에 실제하지도 않았던 서구적 봉건적 개념을 끌어들이며 끼워 맞추고 결과 같이 한국사학이 일제식민사관이 주장한 조선사정 체론을 부정하기 위해 세운 자본주의팽아론도 허구다.” 성균관대 학술원의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의 말이다. 모두 민족만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국가 완성이라는 근대화 패러다임을 제1의 과제로 설정했을 때의 역사인식에 아직도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교조나 일부 좌파인론들은 그 도그마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재단하고 마녀사냥처럼 학교를 몰아붙이고 있다.

.....

※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無等鼓

‘봉(鳳)’은 상상 속의 새다. 흔히 ‘봉황(鳳凰)’이라고 하는데,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고 한다. 따라서 ‘봉을 잡다’라는 말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진귀한 봉황을 잡는다는 뜻으로, 매우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나 일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봉’은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빗대어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이 기업이나 단체, 특히 개인적으로 ‘봉’이 된 사례는 많다. 이 가운데 외국계 스페인이 본사인 자라는 SPA 가운데

늘어난 2038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일본이 본사인 유니클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명품 버버리 역시 한국 판매 가격이 42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1월 중 가격을 평균 4.6% 인상했고 프라다, 샤넬, 페라가모 등 다수의 수입 브랜드도 지난해 이미 가격을 한 차례 인상했다.

한-유럽 FTA로 인해 명품 가격이 떨어져야 함에도 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비싸야 더 잘 사는 이상한 소비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명품은 가격이 인상돼도 매출이 하락하기는커녕 도리어 신장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명품 수입업체들의 횡포에 따라 수입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병행수입’을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의식이다. 명품과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봉이 아닌 손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한국소비자는 ‘봉’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문화 2부	2200-651	광고매체팀
정 치 부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실
사회부	사 진 부	2200-693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